

# 정부3.0의 최근 동향과 방향

공공정보의 민간공개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생산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미



스마트 기기의 증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으로 소통과 정보이용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도 이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회 연속 세계 1위 전자정부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모바일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3.0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신기술에 대처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등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화전략 중 하나이다. 기존의 전자정부를 넘어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SNS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대국민 소통,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모바일 업무방식 정착 등의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행정과정상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빅데이터)를 공유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보완이 제도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서비스와 웹 2.0<sup>1)</sup>기술에 근간을 둔 Government 3.0(정부 Gov 3.0)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 나아가 정부3.0에 대한 언급이 공론화되면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일보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개방·공유로 특징지어지며 정부 주도적이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적인 실험과 참여에 가치가 부여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은 지금까지 정부의 영역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들이 서로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 창조의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고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와 활용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존의 정부와 사용자간의 일방향성 정보전달 과정과는 달리 정부3.0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의 생산·공유·참여 등이 가능한 플랫폼 제공을 기반으로 한다. 웹진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를 보면 같은 연계선상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나아가서는 개인중심으로 전환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정보의 개방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면서 동시에 우리 생활의 양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부 분야의 공공 데이터 공개는 국가 운영을 투명화, 효율화하는 결과를 수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대민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공공 분야 빅데이터 활용으로 얻어지는 경제 효과는 약 10.7조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비용절감, 부정 및 오류에 따른 손실 감소, 세수 증대에 따른 비용 효과가 1,500~3,00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었다. 특히 정부의 공공정보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야는 크게 국방, 보건, 기후, 에너지 분야 등 빅데이터의 산출이 명확한 분야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빅데이터 분석사례들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왔던 막대한 데이터들을 새로운 분석기술과 수집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확대하는 유형이었다. 범죄정보나 세금징수정보, 시민의 건강정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 분야는 대단히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데이터는 수집과 가공 또는 분석 영역에서 민간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활용사례가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세계 거의 모든 정부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는 그간 민간에서부터 촉발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적용 시기나 각국의 정치적 행정적 환경에 영향 받은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1) 웹 2.0은 2003년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와 미디어 라이브(Media Live) 간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기존의 웹(1.0)이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써의 역할을 한 것에 비해 웹 2.0은 정보의 생산·공유·참여 등이 가능한 플랫폼(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웹을 지칭하고 있다.

데이터의 효과적 분석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에너지, 식량, 의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가트너는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며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우위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 시대를 이해하고 정보 공유를 늘려 정보적재소(Information silo)<sup>2)</sup>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맥킨지도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개선, 사업혁신 및 신규 사업발굴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특히 의료분야와 공공행정 영역 등 5대 분야에서 6천억불 이상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서울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버스노선, 지하철 등 교통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의 실시간 활용 및 존재여부, 소재정보를 안내·검색·다운로드 받고, Open API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게 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최근 먹거리에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위상과 역할도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참여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개선한다면 한 단계 고도화된 품질 서비스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능화된 고객의 수요와 눈높이를 조절하면서 기관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도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 맞춤형 정보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성과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등극지년<sup>365</sup>**

※ 참고자료: 정국환, 김영미 외(2012), 『정보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정보 플랫폼화 전략연구』, KISDI 보고서.



2) '자동화의 섬(islands of automation), 또는 '정보 적재소'(information silo)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의사소통에 의해 조정되거나 수정되지 못함을 의미한다.